

## 제25차 아카시아 이사회

제25차 아카시아 이사회가 Macao 중심가에 위치한 Landmark Hotel에서 2004년 11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공식 회의 시작 전 회의장은 그간 오랜 친목과 우정이 어우러져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우리협회에서는 공식대표로 송수구 회장대행과 이근창 국제위원장이, 참관인으로 김영덕 부회장, 김지덕 국제자문위원, 민규암, 최재희 국제위원이 참석하였다.

회장인 홍콩의 Barry Will씨는 개막 인사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의 테러에 대한 정치적인 불안과 SARS로 인하여 고통 받은 회원국을 위로하고, 지난해 Forum을 성공리에 수행한 방글라데시에 대한 치하가 있었다. 더불어 서방국가에서 세계화와 현대화를 주장하면서 변질되고 있는 아시아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본 연합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어 Macao 건축사협회 회장 Eddie Wong은 겨우 190명의 등록건축사가 있는 마카오에서 이처럼 큰 행사를 치르게 되어 영광이며, 본 행사를 통해 한나라 안에 두 개의 제도(一國二制)를 시행하고 있는(중국에 속하여 있지만 별도의 제도를 시행) 마카오 건축계가 선진화를 향해 활성화되는 계기로 본다고 하였다. 많은 건축물들이 포르투갈이 지배하던 시절에 지어져 그들의 양식이 반영되어 있고, 유산 보호 차원에서 보호되고 있으나 이제 새로이 설계되는 건물에는 아시아 본연의 건축 양식을 찾는데 회원국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UIA 제4지역 부회장인 호주의 Louise Cox는 UIA 보고를 통해, 현재 UIA 5개 지역 중 4지역은 아카시아를 중심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전체 건축사 수로 볼 때도 가장 큰 조직이므로 UIA내에서 영향력을 확보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중요 내용들은 UIA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인은 2005년 7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UIA 총회에서 회장으로 출마 할 것이며, 여러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회장은 이어 세계 총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조직원 제4지역은 세계 건축에 좀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아카시아 총회는, 주최국인 마카오에 건축대학이 없는 관계로 홍콩 건축사협회에서 행사의 일부인 학생 챔버리를 담당해준데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2명 이상의 학생을 챔버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번 학생 챔버리에 30명이 넘는 학생을 보내준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와 회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학생 챔버리는 학생들이 행사를 통하여 각국의 실무건축사를 직접 만나고 국가 간 새로운 세대의 건축이해의 교류장이 되므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미래의 아시아 건축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본 행사의 진입부 환영축사를 끝으로 본 회의에 들어갔다. 이사회의 회의 진행 순서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재무담당 Mr. Wong으로부터 회비 징수상황과 재정보고가 있었다. 현재 잔고는 HK\$ 180,411.52로서 5개국이 2004년 회비를 미납했고, 작년 방글라데시에서 주관한 ARCASIA Award를 위한 경비에서 심사위원의 교통비 및 체재비로 적자가 된 US\$ 15,000를



이사회 전경

지원해 주기로 했다. 금회 이후부터는 ARCASIA Award를 위한 지원금을 US\$10,000 미만으로 정하기로 하고 차기 해당 국인 태국에서는 예산을 고려하여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각 Zone별 부회장 보고에서는 Zone 'A'의 부회장인 인도의 Balbir Verma씨는 5개국에 참여하여 30여 항목을 논의했으며, 거의 모든 사항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였다. Zone 'B' 부회장인 싱가포르의 John Ting씨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10월 27일, 28일 약 450명이 참석한 UIA 지역 Forum에서 13개국에서 27명의 연사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중 본 회원국 6개국의 연사의 발표 내용이 가장 훌륭했다고 보고 했다. 행사와 더불어 진행된 분야별 장관과의 광범위한 주제(D/B, 현상설계, 지속 가능한 건축, 교육, 건설 산업 등)에 대한 회의는 아주 유익했으며, 우리 전문단체와 정치권과의 연계 또는 협업은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우리의 주장 또는 의견이 제 도전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설명하였다.

Zone 'C'의 부회장인 Macao의 Carlos Marreiros는 주로 Macao의 현실에 대한 설명으로 소규모인 협회의 실상, 건축학교의 부재, 기존건물의 보존, 중국과의 관계개선(일국이체제 내에서의 제도) 등을 설명함으로써 Zone의 대표성이 결여 되어있었다.



제25회 아카시아 이사회 보드

회장은 회의 개최를 위해 모든 내용을 전자 메일로 송부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에서 많은 Spam에 의해 사전에 받지 못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최종 한 부는 유인물로 보내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는 경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회의에서 회의자료를 송달방법이 결정하기로 하였고, 필자가 제시한 ARCASIA Web Site 활용방안은 차기 회장단에게 적극 도입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어 각 회원국의 국가별 보고에서는 기 제출된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사항만 요약하기로 하였고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국 : 내년(2005년) 4월에 상해에서 위성도시(City Edge : Satellite City)에 대한 Symposium에 대한 내용과 내년(2006년)에 본 회의에 대한 내용과 제안 설명이 있었다. 또한 2006년까지는 차기 올림픽을 위한 주경기장이 완공 될 것이며, 더불어 중국 정부는 호텔을 포함한 부속시설을 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학생 잼버리 행사의 정부 지원을 위해 작년 방글라데시에서 시행했던 모델을 정부에 제출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음을 설명 하였다.

홍콩 : 자체 내에 기존 유명 역사 유산 센터 설립을 준비 중에 있어 건축물 보호에 힘쓰고 있고, 중국과의 일국 이체제 내에서 건축사 상호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말까지는 건축사 계속 교육에 대한 틀을 확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인도 : 건축설계와 건설자재 업체 간 합동으로 건축상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1년 대전 이후 지진에 대비한 건축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도네시아 : UIA에 계류 중인 회원국 가입에 대한 ARCASIA의 협조에 감사한다.

일본 : 건축사 및 기술사(Architect's

Building Engineer)의 자격에 대해 재해석하여 2003년 1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4,500명의 JIA 회원 이외의 회원도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JIA에 입회하도록 하고 있고, 계속 교육은 108점을 획득하고(매년 36점 이상 요구) 회원에게 재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JIA 협회 이외의 기구들도 계속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내년 2월에는 한국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모델로 동경 내 고가도로에 대한 철거와 하천 복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1년 UIA 총회를 유치하고자하니 모든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국 : 올해는 전체 응시자의 약 8%인 421명의 건축사가 배출되었다. 약 70여개 대학이 국제기준에 맞추어 학제를 5년 전일제로 개편하였고 추가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리라 예상된다. 건축 관련 법규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통합한 새로운 국토의 이용에 대한 법률이 재정되어 국토 전체를 단일법으로 적용하게 된다.

마카오 : 건축물기준 특히 소방관련 기준을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 국제적인 전문가 용역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환으로 현재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관련회의에 15명의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국내현상경기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국제심사위원 초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UIA 차기 회장에 알바크리씨가 도전할 것이고, UIA 이사에 모하메드 에자가 입후보 할 것이다. 회원국의 협조를 바란다.

몽고 : 지난해에 참석 못하여 죄송하다. 협회의 회원수는 그간 3년에 걸쳐 200명이 증가하여 현재 500명이다.

파키스탄 : 중국에서 제안한 차기 ARCASIA 총회의 날짜를 라마단 기간인 10월 5일~11월 5일까지는 피해주기 바란다. 현재 협회 Web Site를 구성하고 있으며, 유산이 될 수 있는 건물의

해체를 못하도록 법을 제정했고, 건축과 교수와 학생들을 실무건축사들과 건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Workshop을 가동하여 유명 건축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싱가폴 : 내년이면 창립 72주년을 맞아 회원의 계속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타일랜드 : 내년 ARCASIA Forum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추후 별도로 보고하겠다.

기타 국가들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국가별 보고를 끝내고 고문인 홍콩의 Ronald Poon은 다음 회기부터는 모든 제출물은 디스켓으로 하고 주요부분만 Power Point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Architecture Asia 잡지의 보고에서는 모든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내년 분기별 테마를 1분기 : Heritage, 2분기 : Urbanism, 3분기 : Restoration, 4분기 : Buildings and Landscapes로 정하였으니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잡지는 유가 지로써 각국의 대학과 필요한 곳에 홍보하여 많은 부수가 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카시아 상에 대한 검토에서 방글라데시에서는 일부 작품이 제출양식에 적합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회원작품 이외의 작품이 제출되어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였다. 이상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인 추세에 걸 맞는 환경에 관한 설계 작품에 대한 Category의 추가를 요청하였다.

다음 회의에 대한 타일랜드의 보고에서는 차기 회의의 주제는 "Simplicity and Complexity"이며, 700년 고도인 치앙마이에서 개최할 것이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함께 Power Point로

현지 회의 장소 등이 소개되었다. 회기는 2005년 11월 29일~12월 3일이며, 차기회장단과 일정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제에 대한 논의에서는 Simplicity and Complexity는 너무 광범위하다는데 의견이 있었고, 주제 발표자는 미리 선정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기로 하였다.

고문단(Fellowship)회의 보고에서는 고문단 가입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하고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차기 회의부터는 고문단 참석 인원을 개인이 아닌 각 회원국에서 최소 1명씩 참석하도록 한다. 건축 교육을 위한 항구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아카시아 상에 조경부분, 친환경부분, 가장 아름다운 건물 등 새로운 3개 부분을 추가하고, 시상된 작품에 대한 홍보를 TV 또는 건축 잡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의 질을 향상시킨다. 아카시아 내규 및 집행 절차를 적절히 수정한다. PAM에서 운영하고 있는 Web Site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한다. APEC 건축사에 대한 논의를 개진한다.

이어 아카시아 내에 실무위원회 지속 가능한 건축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함께 추가로 두기로 하였다. 새로운 신입회원 신청에 대한 보고에서는 네팔과 부탄이 회원가입을 준비 중이며, 라오스, 캄보디아, 몰디브, 이란, 러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등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로서

는 회원 입회를 위한 공식적인 신청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다면 참관인으로 참석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지회에서 참가 요청이 있었으나 지회의 회원 자격 여부는 규정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고, 아카시아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UIA 기준이 아닌 UN이 규정한 아시아 국으로 하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였다.

중국의 차기 총회에 대한 설명에서는 가능한 한 경비를 항공료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타일랜드의 제안에 따라 중국측에서 제안한 Hotel 보다 더욱 적합한 호텔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차기 회장인 필리핀의 Yolanda씨는 향후 본인의 임기 중에 수행할 목표로 건축전문직의 역할, 전문가로서의 업무, 건축전문단체의 역할 등을 상세히 다루자고 제안했다.

차기 부회장으로는 Zone 'A'에 인도, Zone 'B'에 태국, Zone 'C'에 일본이 선출되었다.

기타 안건으로 만기가 된 UIA 이사의 한자리는 홍콩, 말레이시아, 스리랑카가 경합을 했고, 회장직에는 말레이시아와 호주가 입후보하여 본 회의에서 ARCASIA에서 한명만 미리 선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UIA 정신에 따라 별도로 지명하지는 않고 그들의 회견만 들었다.

회의는 회장의 매끄러운 회의 진행에 따라



아카시아 이사회  
(중간 아카시아회장 Barry Will)



아카시아 이사회 한국대표  
(이근창, 송수구)

모든 의결 사항들이 완만하게 결의되었다. 특히 200명이 되지 않는 건축사로 구성된 마카오 협회에서 처음 치룬 ARCASIA 행사로는 모든 순서와 회의장의 준비는 수준급 이상이었다. 특히 Forum 행사에서는 여러 회원국에서 많은 석학들이 참여하여 세계화에 따른 회원국의 다양한 연구사례가 진지하게 발표 되었고, 국제행사에 보기 드물 정도로 학생들의 참여가 인상적이었다.

행사 진행을 돕는 도우미들은 건축학을 전공하는 자원봉사 학생을 훈련시켜 투입함으로써 학생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돋보였다.

마카오 건축사협회는 이 행사를,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는 중간 매체로 활용 하기위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아시아 국가의 건축 활동사항을 홍보하기도 하여 건축사협회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협회도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참여하여 국내에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참석 전에 사전 회의 자료를 E-Mail로 전송하여 디지털 시대에서의 국제회의의 양상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시아시피 국내 건축 3단체가 FIKA(한국건축단체연합)를 구성하여 그 세부 역할을 조정하고 있고, WTO 산하에서 급변하는 국제 건축동



아카시아 신입 Yolanda와 함께한 아카시아 참석자 (김지덕 자문위원, 이근창 국제위원장, 송수구 회장대행, Yolanda, 김영덕 부회장)

향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조정, 개선, 건의해야 하는 통로로 우리가 속해있는 국제회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국제단체에 가입한 기본 정신이며 후배들에게 물려 줄 소산의 일부이기도하다.

지난 10여년 이 협의회를 참석하며 느끼는 점이지만 참석할 때마다 본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나라의 대표단은 동일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Jaigham Jaffery, Ronald Poon, Goh Jeong Chia, Reyos Yolanda, Jhone Ting, Tony Wong, Ruwis Khambatta, Mohamed Esa, Hisham, Albakri, Koichi Nagashima, Lakshman, Alwis, Surath, Barry Will, Tay Kheng Soon 등 본 회의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회원들은 그들의 이름을 어렵거나 기억할 것이다. 이들이 지금도 아시아 17개국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끌고 가며 계속적으로 국제사회(UIA, CAA, SERTH 등)의 건축 관련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UIA에서 '국제 건축사 상호 인정 표준안' 작성에 있어 아시아 국가를 대변하여 세부지침, Guideline 작성에 적극 참여하여 'Host Nation에 대한 특례 조항', '건축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 국가 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인지 할 수 있다.

자국의 건축 관련 단체 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에 개인의 열정을 결합하여 이루어지



아카시아 이사회 참석한 각국 대표들

고 있는 국제적 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일구어 낼 수 있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으며, 즉 개인과 국가간의 친분에 따른 외교력의 산물일 것이다. FIKA가 발족되기 이전 국내에서는, UIA는 회원 협회인 한국건축가협회(KIA)가 창구이었으며, ARCASIA는 대한건축사협회(KIRA)가 담당하였으나 FIKA가 발족된 이상 점진적으로 일원화된 목소리로 국제사회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보고서를 빌어 국제 문제에 식견이 많고 경험이 많은 회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Inner Circle), 즉 내부 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국제문제의 사안별 적임자 선정, 국내이익을 극대화한 대안제시, 국제사회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접근 방향 모색 등 국내 제도개선과 함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세계 통상 환경은 다자주의를 주장하는 WTO와 지역주의를 주장하는 FTA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고 본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최혜국 대우(FTN)를 원칙으로 하는 WTO의 실현 보다는 포괄적인 지역 경제 통합 형태를 지향하는 FTA로의 접근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세계를 하나 경제 질서로 엮으려는 WTO의 꿈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금번 칠레와의 FTA 체결에 건축 설계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누가 이의 제기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글 : 이근창 / 우리협회 부회장, (주)업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최재희 / 우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